

교육공동체 나다 주말강좌
2022년 9월

휴먼러니짐

참가안내

[역사] 피터 히스토리아

: 영웅이 아닌 한 소년의 역사 이야기

★ 불멸의 소년과 떠나는 역사 시간여행

[철학] 미래는 과거보다 가깝다

★ 기술발전이 불러온 미래에 대한 두려움 앞에서 인간과 과학의 관계를 다시 묻다

[철학] 우리 안의 근대성

★ 내 삶을 규정짓는 근대철학 이야기



교육공동체 나다 주말강좌
“휴머니즘”에 참가하시는 방법

※ 후원회원 가입은 나다 홈페이지 <http://nada.jinbo.net> “후원하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1. 참가신청

참가신청 연락을 해 주세요

〈새로 참가하는 경우〉

전화 또는 나다 홈페이지 “주말강좌-휴머니즘” 게시판에서 신청 폼 작성.

▶ 알려주실 것 : ①참가자이름 ②휴대전화 ③신청강좌 ④회원가입여부 ⑤입금자명

〈앞 과정과 연결해 계속 참가하는 경우〉

이전 과정에 이어 계속 참가하시는 분들께 새 과정 참가 여부를 먼저 여쭙고 신규 참가 접수를 시작합니다.

2. 후원회원 가입 선택

후원회원은 주말강좌(휴머니즘)와 방학특강 강좌후원금이 20% 할인됩니다.

▶ 후원회원 : 월 회비 1만 원 이상을 납부. 홈페이지 상단 “후원하기”에서 양식 작성.
(※ 홈페이지에 글을 쓰기 위한 로그인 회원과는 별개입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3. 강좌후원금 납부

[2022년 9월 휴머니즘] 강좌후원금

초·중·고 20만원(10강)

▶ 회원은 80%만 납부

▶ 납부 계좌 : 국민은행 543037-01-005880 교육공동체나다

4. 그 밖에

★ 참고하실 사항

1. 강의는 주 1회, 2시간입니다.
2. 오프라인 강좌의 경우 코로나 상황에 따라 온라인과 병행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강의는 2022년 11월 27일까지 진행 예정이며 기간 중 3주의 휴강이 있습니다.

역사 초등

피터 히스토리아 : 영웅이 아닌 한 소년의 역사 이야기 (10강)

★ 불멸의 소년과 떠나는 역사 시간여행

참가자	12~13세 초등부 청소년
개강	<일요강좌> 9월 4일~11월 27일 오전 10시 30분
오리엔테이션	강좌 첫 참가자에 한해서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첫날 수업이 시작하기 30분 전까지 와주세요!
참고	만화 『피터 히스토리아』 1-2권 중 각 강좌 제목에 해당하는 부분을 읽고 와주세요.

만화 『피터 히스토리아』는 온몸으로 역사를 살아온 한 소년, 피터 히스토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이 소년은 용을 무찌른 기사도, 악마와 맞서 싸운 마법사도 아닙니다. 이 소년이 남들과 다르다면 기나긴 역사를 13살 소년의 모습으로 묵묵히 견디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나라를 여행하다 보니 피터 말고도 피에트로, 페트로스, 피에르 등 많은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껏 역사를 영웅들의 재미난 기차놀이 정도로 생각하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소년과 함께 역사 속을 걷는다면 사람들에게 역사란 얼마나 고되고 힘든 싸움이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끝없는 싸움의 여정에서 사람들의 마음에 어둠사리 움튼 희망의 싹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힘이였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소년의 이야기가 끝난 후, 남겨진 역사의 빈 곳을 여러분들의 상상력으로 채워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

1강_ 긴 여행의 시작, 메소포타미아

세상에 대해 궁금한 게 많은 소년 피터와 쾌활하고 씩씩한 엔키두는 마을의 절친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페테루의 절친한 친구 엔키두가 엄청난 형벌을 받을 위기에 몰렸습니다. 우리가 모두 검사, 변호사가 되어 그를 재판해봅시다. 이 재판과 함께 피터의 여행이, 그리고 인간의 긴 역사가 시작됩니다!

2강_ 결코 너처럼은 살지 않겠어 : 그리스의 현인들

아이고, 내 팔자야! 또다시 노예가 되다니... 노예였던 피터가 또다시 노예가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번 주인은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라던데... 그런 주인보다 내 옆의 노예가 더 똑똑해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어? 그런데 주인보다 더 똑똑해 보이는 이 노예는 여러분도 모두 알고 있는 사람이네요? 누군지 알면 아마 깜짝 놀랄걸요?

3강_ 유일신의 도성 : 예루살렘, 예루살렘

신께서 우리를 구원해줄 거라고? 정말로 그럴지 아닐지는 직접 만나봐야 아는 거 아니겠어? 피터가 예루살렘에 신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유일신의 도성 예루살렘에서 서양사의 뿌리를 이루는 기독교에 얽힌 역사를 살펴봅니다. 각자 왕이 되어, 성직자가 되어, 귀족과 평민, 노예가 되어 자신의 속을 감춘 기막힌 토론을 벌여봅시다!

4강_ 하얀 사람 : 무례한 총잡이들

♪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금은보화가 가득한 까만 사람들의 땅이 나 온다네~♪ 유럽이 자꾸자꾸 땅 부자가 되기 시작하네요. 드디어 세계무대의 중심으로 등장하는 유럽을 여행해 봅시다. 인류의 역사를 뒤바꾼 대항해시대에 관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과연 콜롬버스의 신대륙 발견뿐일까요? 하얀 사람들의 영광 뒤에 누군가의 피눈물이 있었다면요? 4번째 시간은 위대한 역사 뒷면의 아픈 그림자를 따라가 보는 여행입니다.

5강_ 지구와 태양의 간단한 비밀 : 유명한 종교재판 이야기

상식도 시대에 따라 변한다는 걸 알고 있나요? 모두가 하늘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믿고 있던 시절, 진짜로 도는 것은 '지구'라고 주장한 위험한 과학자가 있었으니,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바로 그 주인공이에요. 훌륭한 과학자로 존경을 받는 갈릴레이에게 비겁하다고 손가락질을 하는 제자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대체 어찌 된 일까요?

6강_ 잠에서 깨어난 사람들 : 혁명의 도시, 파리

“배가 고프다고 했느냐? 그럼 라면을 끓여 먹으면 되지 어디서 행패냐?” 굶주린 민중들 앞에서 뻔뻔하게 외치던 왕과 귀족들에게 휘둘러진 철퇴! 피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혁명 중 하나로 꼽히는 프랑스 혁명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어라? 그런데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질 처지에 놓여 놓인 루이 16세가 자신은 억울하다고 말하고 있네요. 피로 이뤄진 혁명은 옳지 않거나 뭐라나?

7강_ 쉬지 않는 방적기 : 영국의 어린 노동자들

인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산업혁명! 이 산업혁명으로 인해 인류는 더 많이 쓰고 버리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네요. 하지만 모든 부에는 그만큼의 대가가 필요한 법! 우리가 누리는 풍요의 이면에는 빈곤과 착취라는 그늘이 있었으니... 19세기 영국의 어린 노동자들은 인류의 풍요를 위해 과연 어떤 대가를 치러야 했을까요?

8강_ 산사람들이 남긴 약속 : 그들은 바로 ‘나’다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였을까요, 이미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였을까요?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는 전쟁사인 것만 같습니다. 심지어 전 세계를 전쟁터로 삼았던 세계대전은 바로 20세기에 두 차례나 벌어졌죠. 인류의 역사는 진정 피와 고통으로 일그러진 전쟁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전쟁은 계속되는 걸까요?

9강_ 내 이름은 메어리 허스토리야 : 세상 사람 절반의 외침

역사 속 등장인물들은 대부분 남성입니다. 그건 혹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능력 있고 강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 남성들만의 역사에 과감히 판지를 거는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를 통해 기존의 역사(history)에는 담기지 않았던 또 다른 역사(herstory)를 만나봅시다.

10강_ 안녕, 피터 : 끝나지 않을 여행의 시작

지난 수업들 동안 피터는 어디에 있었나요. 여전히 만화책 속이었나요? 자신이 머물고자 했던 곳은 네모난 만화 칸 속도, 오래된 옛날이야기 속도 아니라고 말해 온 피터. 피터가 오늘은 당신에게 묻습니다. “네 이름은 뭐니?” 그의 여행은 끝나지 않았답니다.■

<h1>철학</h1> <h2>중등</h2>	<h3>미래는 과거보다 가깝다 (10강)</h3> <p>★ 기술발전이 불러온 미래에 대한 두려움 앞에서 인간과 과학의 관계를 다시 묻다</p>
<p>참가자</p>	<p>14~16세 중등부 청소년</p>
<p>개강</p>	<p><일요강좌, 오프라인> 9월 4일~11월 27일 오후 1시 <일요강좌, 온라인> 9월 4일~11월 27일 오후 3시 30분</p>
<p>오리엔테이션</p>	<p>※ 오프라인 : 강좌 첫 참가자에 한해서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첫날 수업이 시작하기 30분 전까지 와주세요! ※ 온라인 : 모든 강좌는 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처음 참가하시는 분들은 강좌 전 시간을 정해 접속테스트를 실시합니다.</p>

과학기술이 우리를 유토피아로 데려가 줄 것이라고, 인간은 오랜 시간 믿어왔습니다. 반복되는 노동을 다양한 기계들이 대신해주고 감각을 무한대로 확장해 온갖 쾌락을 제공해주는 전자매체가 일상화된 이 시대는 어쩌면 과거의 인간이 꿈꾸던 유토피아와 닮아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인지 이 시대를 사는 인간의 고민은 깊어져만 갑니다. 노동을 대신해주는 기계는 인간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전자매체는 감당할 수 없는 정보량을 쏟아내며 인간들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이제 인간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불편함과 고통이 사라진 자리에 남겨진 것은 저 오랜 과거에 최초의 인문학자들이 물었던 바로 그 질문이었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일까?”

지금 인류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유일한 서식지인 지구를 그 어느 때보다 넓고 깊게 뒤덮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가진 가장 강력한 도구인 과학기술은 그 어느 때보다 그 자신을 파괴하고 그들의 서식지를 황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인간은 과학기술을 어디까지 통제할 수 있을까요? 그 결과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찬란한 장밋빛 일 수도 철흑 같은 어둠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 인간의 손을 떠나버려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과학 그리고 인간의 미래에 관해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

1강_ 오래된 미래 : 유토피아 혹은 디스토피아

언제나 내일이 오늘보다는 조금 나은 날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당장 코로나 19만 하더라도 전혀 예상치 못하게 많은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있으니 말이죠. 이렇듯 당장 내일의 행복도 장담하지 못하는데 먼 미래를 내다본다는 건 얼마나 막연한 일일까요? 하지만 미래를 내다보려 애쓰는 일이 그리 무모한 일만은 아닙니다. 근거는 이미 충분하니까요. 여태껏 살아온 시간이 우리의 미래를 보여줄 것입니다.

2강_ 중립이라는 편견을 벗다 : 과학사와 과학관

암을 치료할 신물질을 발견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람 대신 나르는 로봇을 개발했다고 하면 훌륭한 과학자라며 모두 손뼉을 치겠죠? 하지만 그 박수가 위험한 비수가 되어 당신에게 돌아올지도 모른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과학이 단순히 사실의 학문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히려 과학은 거짓말의 학문이기도 합니다. 훌륭한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을 밝혀내는 것 못지않게 거짓말을 잘하는 것 또한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알쏭달쏭한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역사 속 과학자들을 통해 알아보고, 그것이 그들의 미래 즉, 우리의 현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봅니다.

3강_ 인간의 조건 : 인간과 기계의 경계에서

인간들 대부분은, 아니 어쩌면 우리는 모두 이미 사이보그일지도 모릅니다. 오래전부터 인간은 기계를 통해 몸의 기능을 유지하거나 확장해왔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은 몸의 부분들이 기계로 대체될 것입니다. 만약 마지막 세포 하나까지 기계로 대체된다면 그 존재도 인간일까요? 그렇다면 우리 집 곳곳을 종횡무진 누비는 인공지능 로봇청소기도 생명체라고 봐야 하는 걸까요?

4강_ 안드로이드는 전기 양의 꿈을 꾸는가 : 인공지능, 지배와 복종의 논쟁을 넘어

인간보다 바둑과 체스를 잘 두는 인공지능은 인간보다 똑똑한 것일까요? 인간보다 적절한 판결을 내리는 인공지능 판사 솔로몬이 등장한다면 그것은 인간보다 현명한 것일까요? 인간보다 정확하게 수술하는 인공지능 의사 허준이 등장한다면 그것은 인

간보다 생명을 존중하는 것일까요? 인간보다 그림을 잘 그리는 인공지능 화가 미켈란젤로가 등장한다면 그것은 인간보다 예술적일까요? 혹시 어떤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게 될 미래가 올까요? 인간보다 인간적이어야….

5강_ 인공 자궁을 둘러싼 논쟁들 : 정말 윤리만이 문제일까

인공 자궁은 1932년 올더스 헉슬리의 소설 ‘멋진 신세계’에 등장한 이후 현재 심하게 조산한 미숙아 양을 성장시킬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이 소설이 약 600년 후의 미래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하니 그 시간이 엄청나게 앞당겨지고 있는 셈이죠. 이러한 인공 자궁의 발전을 두고 어떤 이는 임신과 출산으로부터 여성을 해방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어떤 이는 기술이 생명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윤리적 잣대를 들이대며 반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의견은 어떤가요. 단, 입장은 저 두 개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6강_ 인간을 위한 일자리는 없다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는 방법

당신이 만약 편의점 사장이라면, 계산 정확하고 감시 잘하고 삼각김밥 몰래 먹을 일도 없는 로봇 점원과 가끔 정산도 안 맞고 시급 적다고 투덜거리는 청소년 중에 누구를 알바로 쓸까요? 같은 값이면 로봇을 채용하는 게 당연히 더 유리하겠죠. 하지만 현실의 당신은 편의점 알바라도 해서 용돈이라도 벌고 싶은 청소년입니다. 로봇 점원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다면 당신에게 허락된 알바 자리 하나는 영영 사라진 셈입니다. 아직은 미래의 일이라고요? 이미 곳곳에 무인 편의점이 생기고 있지 않던가요. 로봇과 일자리 경쟁을 해야 하는 미래의 당신에게 과연 승산은 있을까요?

7강_ 기술과 안전의 상관관계 : 과학은 인간을 안전한 미래로 이끌어줄까

몇 년 전, 구글은 자동주행 차량이 상용화되면 음주운전이나 운전 부주의 등은 옛날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동주행 차량은 이제 곧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들만 보면 안전과 관련된 불안 요소가 많은 현대사회에서 기술의 발전은 우리를 보다 안전한 사회로 인도해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막연한 믿음 때문에 그 이면을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함정에 빠질지도 몰라요.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만 합니다. “기술발전이 우리를 안전사회로 이끌어줄까?”가 아니라 “기술발전으로부터 안전할 방법은 무엇일까?”라고 말입니다.

8강_ 네트워크형 인간 : 모든 것이 연결된 사회에서 살아가는 법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기억과 생각을 공유할 수 있으며, 미디어 역시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미디어의 일부가 되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의 발전은 이 네트워크를 지금보다 훨씬 더 생생하고 정교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촘촘한 그물은 안락한 편안함을 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동시에 사람을 움짱달짝 못 하게 움아매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모든 것이 연결된 사회,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9강_ 과학, 차별을 만나다 : 과학은 소수자에게 어떤 의미일까?

많은 사람이 과학이 인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소수자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더 편리한 도구들이 소수자들을 불편함 혹은 노동으로부터 해방해 줄 것이라는 예측 같은 것들 말이죠. 그런데 이 예측은 정말 맞는 것일까요? 만약 이 예측이 전부 맞는 것이 아니라면 모든 차별받는 이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과학은 무엇일까요.

10강_ 이성과 과학의 시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사람들은 오랜 시간 기술과 과학의 발전을 편리함과 경제발전의 시각으로 바라보는데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그 편중된 시각은 사람들이 지금껏 느끼지 못했던 낯선 공포감을 마주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 공포감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라도, 더 나은 삶을 전망하고 확신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서 더욱 폭넓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앞선 아홉 번의 수업을 통해 우리는 미래를 예측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인류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기술이 발전하는 이 시대에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말이에요.■

철학 고등

우리 안의 근대성 (10강)

★ 내 삶을 규정짓는 근대철학 이야기

참가자	17~19세 고등부 청소년
개강	<토요강좌> 9월 3일~11월 26일 오후 1시
오리엔테이션	강좌 첫 참가자에 한해서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첫날 수업이 시작하기 30분 전까지 와주세요!

우리는 서구 사회가 고안했던 근대적 시간과 공간 안에서, 서구의 근대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탈근대를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적어도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근대라는 괄호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이들은 한국 사회에 대해 전근대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대의 사상가들은 스스로를 ‘합리적’이라고 자신했지만, 적어도 근대 사상의 많은 부분은 기만적이고 위선적이며 오만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만과 위선과 오만은 고스란히 지금 여기를 사는 우리들의 생각 속에도 들어차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그 시절의 철학을 되새겨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근대의 철학을 모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근대적 사고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서운 것은 그런 사고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리가 그것을 선택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서구 근대의 철학을 공부하는 것은 결코 그들의 지혜를 새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속에 숨어있는 근대성의 정체에 다가서고 그런 후에 넘어서기 위한 과정입니다.

.....

1강_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 변화에 대한 고대 철학자들의 생각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시간은 전철처럼 달려가고, 흐르는 시간에 따라서 세상도 변하고 내 몸도 마음도 변해가는 것을 누구도,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무언가를 기대하였는지도 모릅니다. 무(無)를 향해 달려가는 변화의 수레바퀴를 부정하고 싶었던 인간들의 욕망은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강_ 너 자신을 알라 : 플라톤, 철인의 정치를 꿈꾸다

이 세상에 '진리'라는 것이 있을까요? 혹 그것이 있다고 해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것을 찾은 사람이 있다고 해도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줄 수나 있을까요? 철학은 진리를 찾으려는 무모한 시도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 게 있을 턱이 없다는 수많은 회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리는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만약 진리를 알고 있는 자가 존재한다면, 그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진리로 가는 길 입구에 놓여있는 이정표조차도 읽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리를 아는 자를 그저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그가 정말 진리를 아는 자가 맞는지, 그가 아는 것이 정말 진리인지, 누가 보증해줄 수 있을까요?

3강_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 데카르트, 나와 세계를 분리하다

이 세상의 중심은 어디일까요? 이 질문에 '나'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참으로 근대적인 사람입니다. 어쩌면 참 그럴듯한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너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가 존재한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으며 내가 사라지면 결국 세상도 사라지게 되는 건 아닐까요?

세상에 나 혼자뿐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하고도 진정한 소통을 나눌 수 없다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 찾아오는 이유는 혹시 당신이, 그리고 당신, 또 당신이, 모두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해서인 것은 아닐까요?

4강_ 가면 속의 가면 : 흠, 감각의 거리에서 길을 잃다

현대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면을 쓰고 삽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들은 착한 어린이 가면 하나 정도는 꼭 가방에 넣고 다녀야 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아부하는 가면을 챙겨 두지 않으면 출세하기 힘들다고들 합니다. 사람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게 하려면 누구나 잘난 척 가면 정도는 꼭 갖추고 다녀야 합니다. 여러분은 가면을 몇 개나 가지고 다니나요? 혹 그 가면을 벗으면 실제 얼굴이 드러나나요? 가면 속에, 가면 속에, 가면 속에, 아무리 벗겨도 절대 맨얼굴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혹시 그 가면이 결국 내 진짜 얼굴인 건 아닐까요?

5강_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 칸트, 계몽에 영혼을 불어넣다

“계몽이란 인간이 스스로 책임져야 할 미성숙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칸트의 이 말을 미성숙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은 새겨들을 지어다! 그대들이 성숙한 어른들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때로 그것이 통제처럼 여겨질지라도) 그대들 속에 있는 무지와 편견 때문이며 따라서 끊임없이 성숙한 어른들에게 배워야 한다. 왜 꼭 그래야 하나고? 그게 세상의 이치니까….

6강_ 강한 자는 살아남는다 : 헤겔, 역사를 끝장내다

세상을 전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먹지 않으면 먹히는 끝없는 싸움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전쟁터에서 조금이라도 더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 싸우는 것이 각자의 삶의 목표이고 결국 그 싸움의 시간을 모은 것이 인간의 ‘역사’라 불린다고 말합니다.

당신도 인정받고 싶은가요? 동생보다 더 엄마에게 인정받고, 친구보다 더 교사에게 인정받고,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잘난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적인, 적어도 모두가 서로의 적이라는 면에서는 동등한, 이 자본주의라는 싸움터가 당신의 유토피아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이 다 그러하다면 인간의 역사는 선의의(?) 경쟁이 모든 관계 속에서 불꽃 튀는 이 유토피아를 만나기 위해 흘러왔던 것입니다.

7강_ 약자들의 개똥철학 : 마르크스, 철학을 물구나무 세우다

당신은 강한 사람인가요? 아니 그전에,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힘이 센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기준이 뭘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약한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약한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인가요? 철학이란 것이 삶을 설명해줄 수 있는 것이라면, 약자들의 삶은 어떤 철학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약자들도 철학을 얻기 위해서는 싸워야만 하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철학자들은 세계를 해석하기만 했다. 그러나 문제는 세계를 변혁하는 것이다.” 마르크스라는 철학자는 철학을 그저 가진 자들의 지적 유희에서 무기로 변화

시키려고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의 철학에서 약자들의, 우리들의 철학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8강_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 : 프로이트, 무의식을 들여다보다

우리는 흔히 우리 자신을 육체에 갇들어있는 영혼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말은 동시에 우리의 몸이 의식의 조종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여기고 있다는 의미죠. 그러나 우리의 행동을 자세히 지켜보면 의식적으로만 움직여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심지어 꽤 오랜 시간 동안 의식을 배반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오랜 시간 동안(특히 ‘근대’라고 불린 시기 동안에) 인간의 의식이 그렇게나 대단한 것으로 여겨졌을까요? 우리는 잠잘 때도 존재한다는 사실이, 왜 그렇게 불편했던 것일까요?

9강_ 슈퍼맨의 비애 : 니체, 철퇴로 철학하다

입시 경쟁에 내몰려 산지도 어언 20년이 다 되어가는 당신, 그 사이 당신은 아마도 분명히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공부를 해야 하는 거지?” 그리고 당신은 우리네 공부가 그러한 것처럼, 그 질문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 정해진 답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잘 살려고…” 물론 여기서 잘 산다는 것은, 대학이나 직업 같은 물질적 조건을 이르는 말일 것입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철학은 우리 사회의 공부 같은 그런 공부와는 다르다고, 철학 공부를 하는 의미와 가치는 특별하다고…. 하지만 어째서일까요? 철학 공부 역시 자신의 권력을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10강_ 뷰리단의 당나귀 : 근대와 탈근대의 경계에서

너무너무 배가 고픈 당나귀가 있었습니다. 그 당나귀가 하필 두 개의 비슷해 보이는 건초더미를 발견했습니다. 한쪽의 건초더미에 다가가면 다른 쪽의 건초더미가 맛있어 보였습니다. 다른 쪽의 건초더미에 다가가면 또 다른 쪽의 건초더미가 맛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다 당나귀는 결국 두 건초더미 사이에서 굶어 죽고 말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근대 철학을 공부한 후 근대적 사고가 가진 딜레마를 이해했다면, 그

리고 그 딜레마가 그저 어려운 숙제 같은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괴롭히는 현실의 폭력으로 받아들여진다면, 당신은 당연히 그것에게서 벗어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뷰리단의 당나귀처럼 서성이고 있을 뿐입니다. 머무르면서 나는 벗어나고 있다고 상상하는 자들 속에 혹시 당신의 모습이 보이는 않나요?■

■교육공동체 나다 2022년 9월 휴머니즘 소개 마칩■